

ARCHITECTURE TRAVEL



정병협 나은 건축사사무소
by Chung, Byung-hyup, KIRA

· 홍익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지편찬/TF 위원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上)

Dreaming that my life is free

시작하는 작은마음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 한 일상에 매어 살던 어느 날, 서울시건축사회에서 마련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해외답사여행에 함께하면서부터 해외여행에 눈을 뜨게 되었고, 연이어 터키, 서유럽, 중국, 몽골 등을 패키지로 다녀왔다.

특히 그동안 내심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던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는데, 교환학생으로 인도에 가 있는 큰 딸과 그동안의 회포도 풀겸, 함께 인도여행도 할 겸 한 달가량의 긴 여정을 계획한 것이다. 내 생애 가장 긴 여행이기도 하고 아내와 딸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들뜨게 했던 것은 자유로운 배낭여행이라는 점이였다. 설렘과 기대를 담아 꾸린 배낭을 메고 방콕을 거쳐 간 신비의 나라 인도, 인도건축기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부족한 글로나마 「건축사」지에 풀어놓고자 한다.

인도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곳이다. 인도 기행이 강렬히 다가오기 때문에 전에 한 번 다녀온 방콕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기행문은 방콕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사실 딸인 나래가 당초 1년 기한의 인도 비자를 방콕에서 연기해야 해서, 비자를 받는 기간인 일주일을 방콕에서 여행하고 인도로 날아가기로 계획을 잡았다.

12월 29일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하이파이브를 한 짐사람과 나는 타이베이 공항을 경유하여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 내렸다. 내리자마자 태국의 독특한 향이 풍긴다.

수속을 마치고 입국장으로 들어서면서 1년 동안 헤어져있던 딸 나래를 만난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를 먼저 발견하고 나래가 손을 흔들었다. 셋이서 뜨겁게 포옹을 했다. 한 번도 떨어져 살지 않았던 우리이기에 더욱 감개무량했을 거다. 나래는 까무잡잡해진 얼굴이었는데,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공항을 나와 태국여행의 시작점이라는 카오산 로드(Khaosan Road)로 가는데, 나래가 세 명 정도면 공항버스보다 택시가 더 저렴하다며 택시로 가자고 한다. 알뜰한 가이드의 살뜰한 보살핌에 피로는 사라지고 어린 아이처럼 들뜨기만 한다.

깜깜한 창밖 풍경을 보며 1시간여, 카오산 거리는 들던 대로 활기가 넘쳐 있었다. 요란한 음악 소리와 오픈된 호프집들의 풍경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어두운 조명 아래 맥주를 마시고 있는 이상한 머리와 옷차림의 남자들의 모습이 이색적으로 다가왔다. 낭만과 자유로움이 넘치는 거리였다. 늘어선 포장마차에 둘러싸인 관광객들도 거리 풍경에 한몫 거든다. 그 분위기에 이끌리며 딸내미가 예약해 놓은 카오산 로드의 깔끔한 호텔인 'BUDDY Hotel'에 여장을 풀고 집사람은 민소매 원피스 차림으로, 나는 반소매 셔츠 차림으로 갈아입고 비로소 -겨울에서 여름으로 돌아와 -이국땅에 온 느낌을 맛보았다. 분위기에 취하며 그들과 합류하여 프렌치프라이 한 접시에 생맥주잔으로 화이팅을 외치노라니 소박한 행복감이 밀려온다.

12월 30일

바깥 분위기의 붉은 불빛의 조명과 이채로운 실내장식이 돋보이는 호텔 식당에서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방콕 시내의 일출 풍경을 담아본다. 식당 앞에서 나래가 포즈를 취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친절한 여행자의 제안 덕분에 셋이서 다정한 포즈로 가족사진을 찍었다. 카오산 거리를 둘러보며 시장 구경을 하다가 나래의 제안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가서 일정을 잡기로 하고 '방콕여행 백배 즐기기'의 그리 자상하지 않은 지도를 보며 한참을 헤매다 의지의 한국인들은 마침내 흥익여행사 간판을 발견했다. 며칠 일정을 잡는데 군자금이 부족, 인출기를 찾아 나섰다.

퇴약벌에 걷는 걸 힘들어 하던 아내는 릉서리한 일정에 금세 얼굴이 밝아진다. 특히 헬스 랜드의 전신마사지 티켓이 마음에 든다며 연신 싱글벙글 이다. 숙소로 다시 돌아와 잠시 쉬다가 시암스케어로 향한다. 정류장 주변을 기웃거리며 사진을 찍으며 15분 버스를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서야 창문에 우리도, 에어컨도 없는 버스가 온다. 한참을 가다가 차장이 친절하게 나를 보고 손짓을 해서 보니 시암스퀘어란다.

혼잡한 도심에 발걸음을 옮기며 아이쇼핑 하다가 4층 식당가 시암 디스커버리 'coca suki' 에서 점심 겸 저녁을 해결하기로 한다. 꽤 비쌀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우리는 해물샤브샤브와 태국정통 볶음국수 팟타이, 그리고 볶음밥까지 주문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각이라 손님이 없어 마치 전세 낸 것 같은 분위기에다, 출출하던 차에 산해진미를 앞에 하니, 집사람과 나래는 왕비와 공주가 된 것 같이 좋아라 한다. 집에 두고 온 작은딸아이가 눈에 밟혔지만 1년 동안 함께 하지 못한 나래와의 만찬을 근사하게 즐겼다.

식사를 한 후 여자보다 더 예쁘고 날씬한 남자들의 무대인 칼립쇼를 보기 위해 아시아 호텔로 향했다. 한때는 남성이었던 사람들이 화려한 화장을 하고 현란한 조명 아래서 예쁘게 웃으면서 춤추고 노래

하는 모습을 맨 앞자리에서 보고 있노라니 기분이 묘했다.

호텔을 나와 전철을 타고 파퐁 야시장에 갔다. 이곳도 예쁘고 관능적인 여자들이 요란하게 춤추며 호객을 하고 있었다. 그들도 트랜스젠더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야한 풍경이 어서 돌아서 나왔다. 쌀국수를 밤참으로 먹고 걷는데 Foot massage 라는 간판이 보여 지친 발을 맡겨본다. 아주 늦은 시간인데도 손님을 받는 야시장 거리에서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묻어난다.

12월 31일

늦은 아침을 호텔에서 먹고서 카오산 로드 상점에서 썬 드레스와 조리를 샀다. 조리를 사고 돈을 지불하는데 그 아가씨가 나래를 보고 '언니'라 부르더니 나더러 '아빠'라고 말하면서 크게 웃는다. 세계 어느 나라나 상술은 비슷하다. 서툴기는 하지만 한국말을 하는 태국 아가씨 덕분에 한국인인 우리도 따라 웃었다.

쓸 물건들을 대충 사고 택시를 타고 파타야로 이동한다. (우리 인원이 3명이기에 교통수단으로는 택시를 이용하였다. 택시에 미터기가 있지만 대충 거리 짐작을 하고서 가격 흥정을 한 후 탄다.)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와 일반 지방도로를 질주하니 어느덧 해변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목적지인 'A-one hotel'에 도착하니 벨보이가 친절하게 짐을 받아 주어 기분이 좋다. 마린보이 같은 인상을 주는 실내장식이 시원한 느낌을 더한다. 호텔 규모가 상당히 크고 쾌적하여 일정을 잡아 주고 예약까지 해 준 흥익여행사의 배려에 새삼 고맙다.

여장을 간단히 풀고서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으로 나간다. 썬 베드를 3개 빌려 옥수수와 새우튀김 등으로 요기하고, 의자에 늘게 누워 선댄을 한다. 해변에 늘어선 호텔들도 해변의 분위기를 색다르게 수놓는다. 보트 타는 이도 많았지만 우리는 누워 휴식을 취했다. 물속에 몇 번 들어갔다 오더니 딸내미는 지나가는 상인에게 돌고래 모양의 해나를 어깨에 그려 넣는다. 귀엽다.

어느덧 바닷가에는 노을이 지고 있다. 호텔식당에서 2008년 마지막 밤의 만찬을 뷔페 음식으로 먹는다. 바비큐 파티장에서는 라이브 무대까지 마련되었다. 파티장을 나오는데 통돼지가 거꾸로 묶인 채로 바비큐 되어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먹을거리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볼거리로는 영 아니다.

모두들 곤히 자는데 폭죽 소리가 요란하여 잠이 깨어 호텔 발코니로 나가보니 이곳저곳에서 폭죽이 터진다. 환상적인 불꽃놀이를 사진에 담으려고 보니 삼각대도 없고 의욕만 앞서 한 장도 제대로 못 담았다. 한밤에 쌍쌍이 탄 오토바이도 굉음을 내며 쌍쌍 달린다. 해변의 연말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불꽃놀이는 새해로의 길을 열어주었다.

새해 1월 1일

새해 첫날을 해외에서 맞이한다. 일찍 일어나 혼자 길게 늘어선 파타야 해변을 산책한다. 어수선했던 전날의 잔재는 이른 아침인데도 대체로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는데 이때까지도 술에 뒤범벅되어 오픈된 술집에서 요란한 음악 소리에 리듬을 맞춰 노는 이들도 보인다. 해변에서 낚시하는 이들도 보이고 해변을 따라 조깅을 하는 외국인도 보인다.

해변에 있는 한 거목은 뿌리가 꽤 깊이 패었는데도 용케 버티며 서 있다. 최근 파타야 뉴스에서 보니 나무뿌리가 모래가 유실되어 노출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 록카페라코 간판이 있는 건물은 전자기타를 본떠 만든 멋진 탑을 입구에 세워 놓아서 눈길을 끈다. 6km 정도를 걷다 보니 아침식사시간이다. 부지런히 호텔로 돌아와 야외 식당에 마련된 뷔페식당에서 식사하고 호텔 외관이 멋져서 여기저기 둘러본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잡는다고 했던가. 오늘 아침 풍경은 우리 가족 중 나만의 경험이 되었다. 물론 사진으로는 함께 공유할 수 있겠지만...

짐을 꾸려 파타야 끝자락에 있는 선착장 부두로 나가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아름다운 꼬란 섬으로 향한다. 배 안은 어수선했지만 뱃전에 걸터앉아 파도치는 바다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가노라니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파타야 시티라고 쓰인 큰 글자가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이따금 자그마하고 아름다운 섬들이 물에 떠다니듯 스쳐 지나간다.

꼬란섬 선착장에 도착하니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피부에 와 닿는다. 몇 개의 해변이 있는 꼬란섬에서 우리는 티안비치로 가기로 결정하고 작은 트럭(북북)을 탔다. 손잡이를 잡고 앉아 차가 움직이는 대로 흔들려 아이들처럼 엉덩이가 들쭉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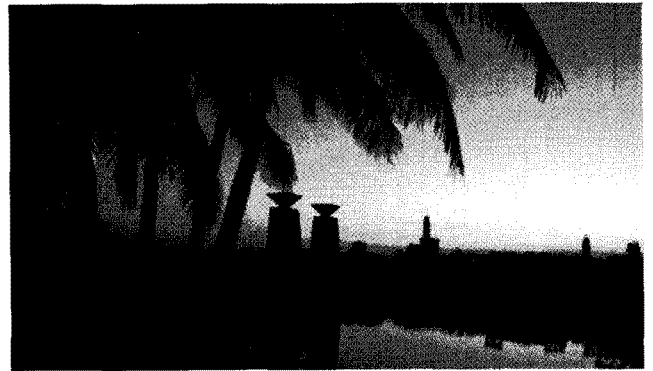
해변이 보이는 곳에서 내리니 산호섬이라는 별명에 딱 어울리는 에메랄드 빛 바다가 펼쳐져 있다. 배 시간에 대느라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채 급하게 표를 끊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채 헬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선착장을 뛰어서 겨우 배를 탔던 우리였기에 더 감개가 깊었을 것이다. 마치 설악산을 오르는 듯한 - 나무로 만든 - 다리를 지나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백사장을 걸어서 선 베드에 누워 있노라니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파타야 해변보다 조용해서인지 옆자리의 비키니 아가씨들이 바닷가를 뒹뒹하며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 유난히 크게 들린다. 그들의 웃음과 몸짓이 해변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준다. 바다를 바라보며 볏음국수와 맥주를 곁들여 먹는 점심식사는 소박했지만 꿀맛이다.

한낮의 그늘 아래 누워 휴식을 취하던 우리는, 마지막 배를 놓치면 안 되기에 부랴부랴 짐을 꾸리고 선착장으로 되돌아왔다. 바다 위로 저무는 노을을 보며 파타야로 향하였는데, 파타야 선착장에 도착하니 사위가 컴컴해졌다. 방콕으로 가는 택시를 잡지 못해 전전궁궁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로 들어와 예약해 놓은 프린스 팰리스 호텔로 들어선다.

1월 2일



숙소에서 바라 본 방콕시내 일출

호텔에서 방콕시내의 전경을 바라본다. 이곳도 빌딩숲과 자동차도 많은데 공기가 서울보다 훨씬 맑아 보인다. 에어컨이 뽕뽕하게 나오는 식당에서 떨면서 식사를 했는데 호텔에서 내려다보이는 주변의 집들은 몇 십 년 전의 모습인 듯 낡고 볼품 없다. 기회가 되면 그 집들을 보러가고 싶다.

오늘은 'health land'에서 마사지를 받고 저녁에 크루즈 호텔에서 식사하며 관광을 하는 호사스런 일정이다. 방에서 여유롭게 쉬다가 특등을 타고 헬스랜드에 도착하니 대낮인데도 손님들이 많아 주차장도 꽉 차 있다. 카운터에서 접수를 하고 간단히 빵과 생과일주스를 주문했는데 세 가지 정도의 과일을 함께 갈아 만든 주스 맛이 일품이다. 남녀가 따로 받아야 한다가에 우리는 잠시 헤어졌다. 도복 같은 마사지용 옷을 입고 다소 어두운 밀실에서 2시간여 동안 전신 마사지를 받는데 몸과 마음이 다 릴렉스된다. 태국 마사지에 중독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아내와 딸내미도 싱글싱글 밝은 얼굴로 나왔다. 아내는 간을 내주어도 살 수 있다면 용궁에서 살고 싶다고 한 토끼의 마음을 알 것 같으며 웃었다. 전신마사지가 정말 좋았나 보다. 한번 더 오자고 아우성이다. 나중을 기억하고 아쉬운 발길을 돌린다.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 여행의 묘미 중의 으뜸일 것이다.

Health land 건너편에 있는 백화점에 들러 소품을 사고 크루즈를 타러 간다. 아직 이른 시각이라 유희가 전신된 갤러리에 들러 구경하는데 나래가 아빠 도촬했다며 카메라에 담긴 내 모습을 보여준다. 누드화를 감상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다. 배의 키 모양의 그림이 담긴 스티커를 가슴에 달고 'chao praya princess'호에 올랐다.

강물 위에 떠있는 크루즈는 화려한 조명을 받아 부드럽게 움직이며 우리를 반긴다. 중앙 테이블에 뷔페 형식으로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김밥과 김치가 식욕을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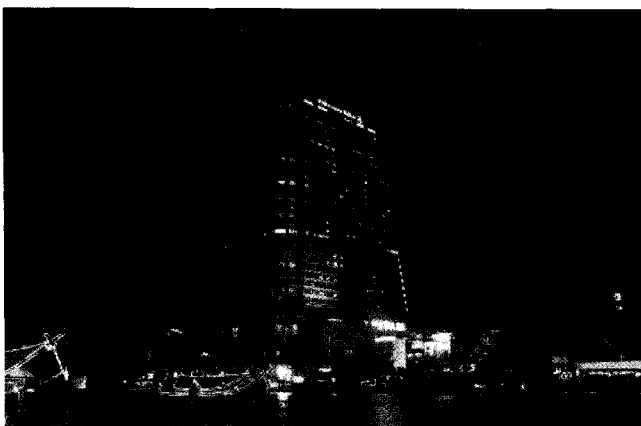
하얀 테이블보가 덮인 식탁, 은은한 빛을 발하는 양초가 통유리 창에 빛나고 창밖을 바라보니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이브 무대가 펼쳐지자 박수갈채가 터져나오고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한국노래를 곧잘 부르는 가수는 약간 어색한 발음으로 '어머나'와 '만남'을 연이어 부른다. 가수가 '베사메우초'를 부르자 몇 사람이 무대로 나와 흥겹게 춤을 춘다. 크루즈가 잠시 다리 밑으로 들어갈 때는 쎄느 강변을 지나는 착각에 빠졌다. 쎄느 강가의 프랑스인들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즐기고 있었는데... 에펠탑의 화려한 조명을 뒤로 하며 흘러갔던 쎄느강의 유람선. 쎄느강의 야경은 역동적이고 낭만적이었는데 방콕의 강변 야경은 고요하고 정적이다. 쎄느강의 야경을 데려온 방콕의 밤이 고요히 흘러간다. 스쳐 지나가는 밤의 정경이 앵글을 잡게 한다. 2시간 정도의 유람을 마치고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왔다. 숙소에 거의 도착할 무렵 모자를 두고 내린 것이 생각나 다시 선착장으로 차를 돌려진만 배는 간 데 없고 검은 물결만 출렁인다. 수족처럼 함께 하던 물건을 잃어버리고 돌아서는 마음, 헤아릴 수 없이 씁쓸하다.

1월 3일

아침 일찍 투어가 예정되어 있어 오전 6시에 호텔에서 식사를 마치고 약속된 홍익여행사로 택시를 잡아타고 향한다. 7시까지 도착해야 하는데 조금 늦어 골목을 뛰어서 갔는데 차가 안 보인다.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렸나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잠시 후 봉고가 도착한다. 각기 다른 곳에서 픽업하여 오느라 늦었던 모양이다. 다행이다.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유엔모지, 콰이강의 다리로 이동한다. 잠시 쉴다가 눈을 뜨면 베트남 전쟁 영화 세트 같은 곳을 지나고 있다. 3시간 정도 이동하니 유엔모지가 나온다. 젊은 병사들의 묘지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는데 특히 23세의 꽃다운 나이에 진 젊은 병사의 묘비명은 유난히 가슴을 저리게 했다.

다시 차를 타고 콰이강의 다리로 이동한다. 이곳에 전쟁 박물관도



크루즈호에서 바라본 전경

있었는데 대강 훑어보고 콰이 강을 건너다. 철교를 건너는데 군데군데 나무판자들이 뜯겨 나간 사이로 시퍼런 강물이 발아래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자칫 잘못 발을 옮기더라도 할 양이면 곧 떨어질 듯 아슬아슬했다.

햇볕이 무척 따가웠지만 강변 풍경은 그나마 전원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이다. 보트를 타고 왔다가는 풍경도 정겹고 수상가옥도 가지런히 지어져 있다. 다시 다리를 건너갈까 하다가 보트를 타고 한 바퀴 돌았다. 다리를 걸어서 건널 때는 강물이 무섭게 느껴지더니 보트를 타고 콰이 강을 푸른 물결을 헤치며 가니 몸과 마음이 다 상쾌하다. 눈으로 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어서 코끼리 트래킹(elephant tracking)에 나선다. 밀림은 아니지만 조성된 수풀 사이를 헤쳐 가면서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트래킹 하는 맛은 색다르다. 아내와 내가 함께 탄 코끼리가 female이고 나이는 45세, 이름은 샌디라고 가르쳐 준 몰이꾼 소년은 자신이 19살이고 이름이 썬이라고 소개하면서 땅에 흩어져있는 분비물을 코끼리 똥이라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는다. 한국인 관광객에게 나름 한국말을 구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려는 소년의 마음에 탄을 2번 주고 내렸다.

코끼리 트래킹을 마치고 뗏목을 타러 가는데 이번엔 강 위에 설치된 허술한 흔들다리를 건넌다. 걸을 때마다 흔들거려서 조심스럽게 건너왔는데 우리가 뗏목을 탈 즈음엔 놀랍게도 뒤에 여자를 태운 오토바이가 썩하며 다리를 건너간다.

뗏목은 대나무를 엮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탈 때마다 조금씩 가라앉아 강물이 넘실거린다. 한가운데 웅크리기 모여 앉으니 사공이 노를 젓는다.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것이 마치 표류하는 듯한 느낌이다. 나룻배를 타는 것과는 또 다른 기분이다. 뗏사공은 노를 유유히 젓고, 뗏목을 탄 젊은이들은 물이 신발 위를 넘나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즐겁게 이야기를 한다. 두려움 없는 젊음이다.

이어 간 곳은 'SAIYOKNOI WATER FALL'이다. 돌계단을 조금 올라가서 그 폭포를 보았는데 생각보다 느낌이 덜하다. 우리나라에서 더 멋진 폭포를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도 태국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웃을 입을 채로 물속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시골 사람들의 물놀이 모습이다.

오늘의 여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기차역 'Namtok'.

딱딱한 나무의자에 창문마저 없는 입석열차인데 창밖으로 펼쳐지는 경치가 프랑스에서 떼제베를 타고 스위스로 갈 때 보았던 풍경과도 같았다. 까르르 웃는 천진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앵글에 담다가 집사람을 찾아보니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 옆에 엉덩이만 걸치고 웅크리고 앉아 연신 즐기고 있다. 나중에 아내에게 물으니 젊은 부부가 같이 앉으면서 자신의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면서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는 것이다. 어느 곳이나 소박하고 따뜻한 인정이 살아 있어

여행자들의 피로를 씻어준다. 젊은 부부의 착한 얼굴을 닮아서인지 아이의 눈이 더없이 순해 보이더라. 어둠이 깔릴 무렵 다시 방콕으로 돌아왔다. 종일 바쁜 일정으로 몸은 적잖이 피곤했지만, 구경 한번 잘했다.

1월 4일

호텔 분수대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여행을 시작한다. 식사 후 늦을새라 홍익여행사로 향했는데 7시가 지났는데도 봉고가 안 온다. 15분 후 봉고가 와 먼저 탑승해 있는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담논사두악' 수상시장으로 달린다. 시장 근처에서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으로 이동했는데 우리 일행이 봉고에서 내리니 노란 비단구렁이를 목에 감고 서있는 남자가 보인다. 뱀과 촬영하는데 200바트란다. 하얀 피부의 금발아가씨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구렁이를 목도리처럼 두르고 사진을 찍는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인 듯한 청년이 아연실색하며 도망간다. 그들의 모습에 모두들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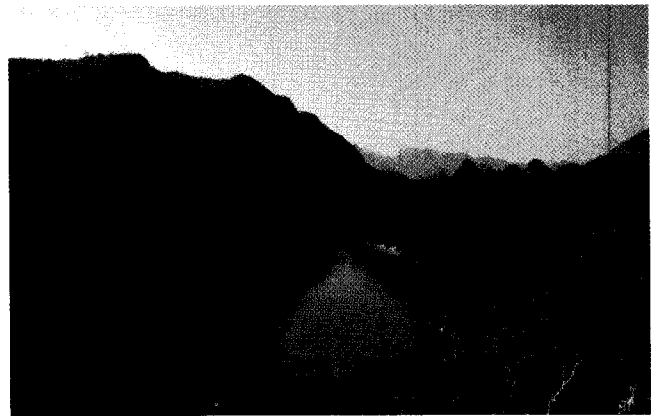
수상시장에서 바라본 여유로운 풍경

담논사두악 수상시장은 말 그대로 물 위에 열린 시장이다. 강물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전시된 시장 풍경은 딱이나 이국적이다. 상인들은 저마다의 쪽배에 과일이나 먹을 것들을 싣고 다니며 팔고 관광객들은 관광용 보트를 타고 좁은 강물 사이사이로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충돌은 하지 않는다. 누워서 보트를 타는 젊은이, 보트를 타고 가며 사진을 찍히는 것을 알고는 포즈를 취해주는 분과 무거운 카메라를 목에 메고 작품을 찍으러 다니는 멋진 수영의 노작가, 먹을 것을 파는 할머니가 물건을 팔 적마다 주글쭈글 주름 잡힌 얼굴에 함박웃음을 터트리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져 셔터를 눌렀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흥길동 마냥 사진을 찍다 보니 잠시 이산가족이 되었는데 아내와 딸아이가 건너편에서 망고스틴을 먹으며 손짓을 하고 있다. 건너가서 함께 망고스틴을 먹었다. 먹을 것은 적었으나 맛이 상큼했다.

코끼리 쇼 하는 곳으로 가기 전 점심을 먹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온 잠깐 사이 이들이 음식을 거의 먹고 빈 접시만 남았다. 서양인들은 배

너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배고픈 여행자에게는 예외인 모양이다.

여러 가지 묘기를 보이는 코끼리쇼와 악어 쇼는 예전에도 본 일이 있어 별 감흥 없이 보고 있는데 코끼리가 앞 발을 크로스하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참 앙증맞다. 녀석들이 퇴장할 때 앞 코끼리의 꼬리를 물고 나가는데 한 녀석이 꼬리를 놓쳤다가 재빠르게 다시 물면서 퇴장을 한다. 오랜 조련 덕분이겠지만 코끼리의 눈치코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를 말고 춤추기, 코에 홀라우프 끼고 돌리기, 땅에 코 박고 뒷발 들기 등의 묘기는 사람들의 장기자랑에 결코 뒤지지 않은 수준이었다. 딸내미와 집사람은 코끼리들의 재롱에 흥이 나서 연방 박수를 친다. 수고한 코끼리에게 보답으로 10바트의 사료를 사서 주었다.



로즈가든에서 방콕으로 가는 열차에서 본 풍경

코끼리 쇼를 구경하고 잠시 악어 쇼를 보러 갔다. 조련사가 누워서 악어에 머리에 들이치는 장면은 위험하면서도 스틸이 느껴진다. 나이 어린 조련사가 악어 입 속으로 들어가는 클라이막스에서 박수 갈채가 터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돈을 던진다. 악어가 조련사 소년의 장난감 같다는 생각에 문득 악어가 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악어답지 못한 악어와 악어의 눈물 닮은 인간의 눈물... 마지막으로 로즈가든으로 이동하여 태국의 전통 민속공연을 관람하고 일찌감치 방콕의 카오산로드로 갔다. 보랏빛리본을 곁들여 레게머리 스타일로 머리를 땀고 있는 나래처럼 다른 상점 앞에 앉아 머리를 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카오산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일 것이다. 주변 길거리 음악 공연도 오늘따라 더 다채롭게 보인다. 구운 옥수수, 수박, 쌀국수, 스프링롤... 여러 가지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고 레스토랑에서 맥주와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오며 오늘의 여행을 끝맺는다.

1월 5일

벌써 태국에서 7일째다. 오랜 만에 여유를 부린다. 조금 늦게 아침을 먹고 카메라를 들고 호텔 주변 주택가 풍경을 담아보려고 산책하듯 혼자서 돌아다녔다. 번듯한 호텔과는 달리 주택가 환경은 열악

하기 그지없었다. 우리네 판잣집은 겉과는 달리 갓출 것은 다 갖추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곳 방콕은 겉모습이 삶의 모습 그대로이다. 삶에 찌든 모습이 많이 목격된다.

프린스펠리스 호텔에서 체크 아웃, 팔네미 인도 비자 발급받고, 바이욕 스카이 호텔로 향한다. 오후 5시30분 입장해서 뷔페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한국식, 일본식 등 다양한 음식이 있다. 그동안 느끼한 태국 음식이 물려있던 탓인지 김치와 김밥, 일본식 미소장국이 특별히 맛있었다. 식사 후 전망대를 둘러보고 사진도 찍으며 시간을 보낸다.

기다리던 신비의 나라 인도로 가기 위해 새벽 4시에 모닝콜을 맞추고 방콕에서 마지막 잠을 청한다.

1월 6일~1월 7일, 델리

기다리던 인도 여행이 시작되는 날이다. 새벽 4시에 기상, 택시를 잡아타고 새벽공기를 가르며 수완나품 국제공항 도착. 5시10분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 수속을 밟고 탑승하러 B6 게이트로 갔는데 탑승 시각인 6시50분이 지났는데도 게이트가 굳게 닫혀 있다. 뭔가 불안한 느낌. 델리에 짙은 안개로 2시간 딜레이라고 써있다. 할 수 없이 공항 안에서 일출을 보며 기다린다. 나래는 면세점에서 이어폰, 열쇠고리를 사고 있었다. 출국장에는 턱수염을 기르고 티번을 쓴 인도 사람들이 많아 인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인도 여행 필수 품목인 목베개 신세를 지면서 2시간을 버텼다. 8시 30분경 샌드위치와 콜라를 배급한다. 받고나면 보딩패스에 X표를 한다. X표를 지우자는 나래의 조크에 한바탕 웃으며 샌드위치로 요기를 했다. 9시 20분 탑승을 한다. 비교적 편하게 여행했던 태국을 떠나면서 출발부터 딜레이된 인도여행이 순탄할 것 같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만 창밖을 내다보니 햇살이 유난히 찬란하다. 우리의 인도행을 환영하는 것이라.

점심을 먹고 한숨 자고 나니 착륙한다는 방송이 나온다. 드디어 인도의 하늘이라니... 시계를 맞추고 나니 짜릿하다. 인도시각 13시 5분 착륙. 세관을 통과하고 입국 수속을 하려고 서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모두 새치기하여 나간 모양이다. 그야말로 줄을 잘못 선 거다. 이어 가방을 찾으러 갔는데 1시간여를 기다리는 데도 나오지 않는다. 일일이 수동으로 짐을 꺼내고 있었는데 인도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물건을 먼저 가져가려고 공항 직원에게 팁이라도 준 것인지 그 사람 물건이 나오자 다른 짐들이 서서히 나온다. 힘겹게 짐을 찾고 나오니 3시가 되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뿌연 먼지와 직직한 냄새, 지저분한 주변 건물들이 인도의 첫인상으로 등장한다. 택시 운전사가 접근해 흥정한다. 이때 한국인인 듯한 젊은 여행자가 같이 동승 하자고 한다. 택시 흥정을 하고 델리 시내로 향한다. 택시는 낡아 백미러도 없다. 공

항 주변은 개발 붐이 일어났는지 흙먼지가 뒤덮인 공사장이 이곳저곳 많이 보인다. 번잡한 곳을 경적을 뱅뱅거리며 요란스런 소음을 내며 빠져나온다. (나중에 안 거지만 인도사람들은 경적 소리를 후렘처럼 달고 다닌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경적은 욕과 통하는 표현이라고 웬만하면 울리지 않는다는데 인도인들은 경적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참 좋아한다.) 중간중간 말을 시키며 다른 곳에 내려주려는 택시 기사의 간교함에 넘어가지 않고 목적지인 빠하르간지에 도착했다. 거의 다 왔을 때 운전사는 지리를 잘 모르는 척하며 주변을 빙빙 돌고 있다. 인도의 기사들은 대부분 이 모양이라고 나래가 귀뜸을 한다. 결국 지도를 펴고 우리가 길 안내를 했다. 택시에서 내리니 사진으로만 보았던 인도 델리의 풍경이 내 앞에 나타난다. 사람들과 잡동사니들과 뒤엉킨 지저분한 길거리를 천천히 누비는 검은 소, 하얀 소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반가움이 앞선다. 인도에 살다보면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었던 나래의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처음인데도 전혀 낯설지가 않다. 책에서, 사진에서 많이 보아서일까. 그만큼 변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얘기도 되겠지. 목을 곳을 찾으려 골목을 이리저리 돌다가 '인도 100배 즐기기'에 소개되어 있는 곳을 겨우 찾았다. 들어오는 골목길에 오픈된 화장실이 있는데 건물 벽에 바로 붙어 있어 그냥 벽에다 방노한다. 소의 방노에 사람들의 방노까지... 냄새가 코를 찌른다. Don't worry! Be happy! 인도인들의 정신으로 나도 무장해야 할 거 같다.

'International Hotel' 입구에 들어서니 그런대로 깨끗하게 정돈돼 있다. 생각보다 양호하여 일단은 안심이다. 입구에 목공공사를 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사진을 찍어 준다 하니 품을 잡으며 즐거워한다. 흥정을 하고 방을 정했는데 나래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방을 옮기기로 한다. 일단 짐을 풀고 침대에 잠시 누워 본다. 무거운 배낭에서 해방되니 살 것 같다. 4시다.

공항에서 같이 동행한 배낭자도 같은 호텔에 방을 정하고 인도 100배 즐기기 책에 소개된 인디언 레스토랑 옥상 식당에서 명물인 소들과 지저분한 상점과 잡동사니들이 즐비한 땅을 내려다보며 시원한 맥주 한 잔씩을 마신다. 젊은 여성이 45일 일정으로 혼자 여행을 왔으며 인도 북부와 중부지방을 여행하고 있다고 한다. 도전정신과 용기가 뛰어난 사람이다.

Roof 식당에서 탄두리 치킨과 새우커리 등을 난과 함께 먹었는데 입맛에 대체적으로 맞는 편이어서 맛있게 먹었다. 서쪽 하늘에는 노을이 멋지게 나타난다. 식당 종업원과 기념 촬영도 하였는데 이 분들도 포즈를 취해주며 아주 좋아한다. 식사를 하고 주변을 구경한다. 어수선한 시장 골목에 뱅뱅거리며 지나가는 릭사들의 행렬에도 인도 소들은 전혀 아랑 곳 하지 않고 주위를 맴돌며 서성거린다. 소들과 인도사람들이 닮은꼴이다. 식사 후 바람을 쐬 겸 델리 기차역까지 걸어갔다. 역 내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과 웅기종기 앉아 있는 사람들로 웅성거렸는데 보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다. (이것

이 인도의 기차역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풍경임을 나중에야 알았다.) 숙소에 들어와 씻으려고 하니, 물은 나오다말다하고 수전은 쓰다 걸어놓은 거 같고 담요(인도의 호텔은 이불이 거의 담요이다.)는 백 년쯤 세탁하지 않은 것 같으며 집사람이 침낭을 꺼낸다. 이름만 호텔이지 시설은 불편하기 그지없다.

1월 7일

오전 5시 30분에 해 뜨는 roof 식당에서 일출을 보기로 해서 일찍 일어났는데 새벽 3시가 채안 되었다. 더 이상 잠이 안와 세면을 하는데 갑자기 불이 꺼진다. 프론트에 가서 알아보니 이 지역 모두가 정전이라고 하면서 직원이 옥탑으로 데리고 올라간다. 석유통에 기름을 따르고는 발전기를 돌린다. 잠시 후 전기가 들어온다.

직원은 짜이 한 잔 먹겠느냐고 물어본다. 오케이 하니 옥상에 있는 주방에 들어가서는 주전자에 물을 끓인다. 처음 먹어보는 짜이는 커피 맛 같다. 맛이 좋아 한 잔 더 마신다. 직원에게 팁을 건네주고 고마워한다. 옥상 주변은 어둠에 싸여 적막감이 흐르고 있고 멀리 뉴델리는 불빛이 환하여 고층건물의 야경이 눈에 들어온다. 인도에 지역적인 차별이 있나보다. 조금 있으니 또 정전이 된다. 그가 다시 반복하여 발전기를 돌린다.

몸을 움츠리게 하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이른 새벽부터 킁킁한 거리로 나선다. 새벽에 자전거에 짐을 잔뜩 싣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보인다. 10미터 간격으로 길거리에서 쪼그려 자며 노숙하는 이들이 많이 보인다. 인도의 명물 소들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닌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소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도 본다. 사원에서는 특유의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서서히 날이 밝아진다.

집사람과 약속시간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려하니 너무 멀리 걸어나왔다. 빠하르간지 시장입구에 들어서니 집사람과 나래가 두리번거리다가 나를 발견하고 뛰어온다. 옥상에 올라갔다면 내가 없어졌다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다고 한다. 말이라도 하고 가지 너무했다고

아우성이다. 이동식 리어카에서 짜이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위도 달래고 기분도 달랠 겸 한 잔씩 마셨다. 생강향이 강한 짜이였는데 호텔에서 마신 것과 다른 맛이였다. 그 날 새벽 시장의 짜이가 인도에서 마신 짜이 중 가장 맛있었다는 집사람의 말을 떠올리며 이 글을 쓰고 있자니 인도가 그리워진다.

루프 식당에 가려니 문이 닫혀있어서 계단을 내려와 릭사를 타고 붉은 성을 보러 간다. 이곳도 너무 이른 시간이라 못 들어간다고 한다. 옆 찬드니 초크(Chandni chowk) 거리에는 다감마 자인교 사원(Digamber Jain Mandir)이 붉은 사암과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어 눈에 쉽게 들어온다. 안으로 슬쩍 들어 가보았는데 엄숙한 분위기라 바로 나온다. 바로 자마마스지드로 갔으나 이곳도 너무 이른 시간이다. 아침식사를 할 곳을 찾아보는데 쉽지가 않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물색을 하다가 뭇지는 모르지만 입구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들어섰다. 튀김종류였는데 두 번 튀기니까 가득 부풀어 오르는 것이 소스에 찍으니까 먹을 만했다. 주변에는 자전거 릭사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였는데,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한 사람이 모는 사이클 릭사에 몸을 싣고 가는 풍경이 신기하기도 하였다.

자마 마스지드로 간다. 들어가는 게이트가 여러 곳인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이트는 한정되어 있어 힘들게 찾아 다녀야했다. 이 사원바닥은 지상보다도 높아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신발은 꼭 벗고 들어 가야 한다. 카메라 촬영권이 200루피라서 딸내미와 번갈아 가며 들어갔다. 많은 비둘기가 이곳에서 서식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비둘기가 날아가는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할 정도의 장관이었다. 사원 안에는 신도인 듯한 여자들이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머리에 큰 스카프를 두른 집사람이 같이 앉아 기도하는 모습도 찍었다. 역시 하트모양의 출입구를 통해 보는 자마 마스지드(Jama Masjid) 사원은 타지마할을 세운 샤 자한의 최후 걸작품으로 1644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샤 자한이 죽고 난 1656년에 완공됐다. 총 수용인원이 25,000명에 달해 인도의 이슬람 사원 가운데 가



자마 마스지드에서 기도하는 인도인의 풍경



자마 마스지드 전경

장 규모가 크다. 언덕 위에는 미나레트(Minaret)라 불리는 두 개의 뾰족탑이 있는데 높이가 무려 40m나 된다고 한다. 건축물을 대하면 내 감성과 사진기가 동시에 움직인다.

사이클 릭샤를 타고 붉은 성(Red Fort)으로 간다. 햇빛이 강하게 비취서인지 붉은 성의 모습이 더 웅장하고 위엄 있어 보인다. (붉은 성은 무굴왕국의 황제이자 건축광이었던 샤 자한이 1639년에서 1648년에 걸쳐 공들여 지은 성으로 델리가 수도였던 시절에 왕궁으로 사용했던 건물이다.) 가는 곳마다 외국인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 게이트에 들어서니 무장한 남녀 군인들이 소지품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를 지나니 보석상들이 즐비한 상점들이 뿅뿅이 들어서 있다. 끝눈길로만 쳐다보고 여기를 나서니 개 한 마리가 양지바른 곳에 엎드려 낮잠을 즐기고 있다. 누구 하나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 인도는 정말 동물의 천국이다. 성 안이 정말 넓어서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다. 넉넉한 마음으로 감상하며 걷기를 즐긴다. 전쟁기념관같은 박물관을 구경하고 나오면서 다라쥐, 앵무새도 보았다.

빠하르간지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환전소로 갔다. 능글능글한 남자가 환전 후 너스레를 떨며 웃으며 동전지갑을 선물로 주었는데 나와서 계산해 보니 800루피나 덜 주었던 것이다. 영수증 발급도 하지 않은 터라 간디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루피화를 찬찬히 보며 후시 위 패라도 섞여 있음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해야 했다. 다시 릭샤를 타고 코트플레이스로 왔다. 이 곳은 도시답게 고층건물도 많고 거리도 시원하고 깨끗한 편이다.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여행일정도 세워 보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쇼핑도 한다. 상점 인테리어도 현대적이며 유명메이커 상품들도 많이 판다. 나래는 동행한 배낭여행가 언니와 같이 베네통에서 진초록색 후드티를 사면서 나중에 우연히 다시 만나면 그 때 이 옷을 입고 사진을 찍자고 약속한다. (실제로 우리는 10일 후 우다이푸르를 떠나는 터미널에서 그녀와 헤어졌다. 놀랍게도 그 넓은 인도에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바라나시로 가기위해 호텔에 맡겨둔 배낭을 찾아 델리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기차에서 먹을 바나나, 오렌지 등 과일과 음식을 사서 챙긴다. 과일 값은 싼 편이지만 우리것처럼 맛있지는 않다. 시간이 다 되어 급하게 역 구내로 들어갔는데 열차 도착시간 등의 안내가 전혀 없다. 역무실로 들어가 물어보니 18시 30분차가 23시 30분에 온다고 한다. 5시간 기다려야 한다. 그 와중에도 인도사람들은 묵묵히 거적 따위를 깔고 앉아 기다린다. 이런 일이 흔하다는 말은 익히 들었으나 현실로 닥치니 은근히 화가 난다. 게다가 큼직한 배낭 세 개를 지키러니—인도에서는 순식간에 눈앞에서 물건이 사라진다니— 잠을 청할 수도 없다. 눈앞에서 소들은 왔다갔다 하고 사람들도 어지럽게 왔다갔다 하고 밤이 깊어지니 몸은 춥고 자리는 불편하다. 22시경 열차가 와 대기한다. 승강구 쪽에 승객 명단이 붙어 있어 열차 칸과 번호를 확인하고 쉬다가 지지분한 기분이 들어 침낭을 깐다. 누워서 잠을 청하려는데 주위가 소란스럽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리를 비

우라는 것이다. B3가 순식간에 B1으로 바뀌어 이미 이 곳은 우리 좌석이 아니었다.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을까. 열차칸의 통로가 연결되지 않아 내려서 다시 타야하기 때문에 침낭을 대충 챙기고 다시 승강구를 내려가 B3을 찾아 뿔 수 밖에 없었다.

1월 8일~1월 9일, 바라나시

곤한 잠에서 깨어 눈을 뜬다. 간 밤에 비가 흠뻑렸는지 창이 희뿌연하다.

열차 침대칸에서 침낭에 엉켜 뒤죽박죽거리며 귀중품을 도난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잤으니 그야말로 새우잠이다. 12시간을 가야하니 이제 반 정도 남았다. 열차 안은 아직도 킁킁하다. 답답한 좁은 공간에서 뒤척이다가 승강구 문을 열어본다. 시원하면서도 찬 공기가 피부에 와 닿는다. 안개가 잔뜩 깔려 있어 풍경은 제대로 안 보이지만 이국적인 농촌풍경이 스치듯 지나간다. 한 농가에 대어섯 마리의 소가 풀을 뜯고 있고, 한 쌍의 백로가 물 위에서 먹이를 찾아 날아가는 모습도 보인다. 낙타 떼를 몰고 가는 농부, 소 떼를 몰고 가는 농부, 아침 일찍부터 자전거를 몰고 어디론가 빠르게 가는 노인을 보면서 인도의 농촌을 결눈질 하여본다. 카메라를 들고 나왔지만 멋진 장면을 아쉽게 많이 놓쳤다. 이렇게 바깥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열차에 서서 셔터를 누르는 일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 강가도 많이 보였는데 안개가 걸히질 않는다. 지역적으로 안개가 많은 곳인가 하는 생각도 한다. 열차 내에서 고양이세수를 한다.

12시간 30분 동안 열차를 타고 바라나시에 도착한다. (바라나시는 힌두교도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7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갠지스 강의 왼쪽 둔덕에 자리 잡고 있으며 BC 2000년경 아리아인이 처음 정착하여 살았다 한다. 석가모니가 활동하던 시대(BC 6세기)에는 카시 왕국의 수도였으며 가까이 있는 사르나트는 그가 처음으로 설법을 한 곳이다.)

바라나시의 첫인상은 어수선한 지지분함 그 자체였다. 역 광장의 붉은 진흙이 유난히 눈에 띠어서 더 칙칙해 보였는 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 분위기를 벗어나려고 빠르게 걸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릭샤꾼들이 우르르 달려든다. 역 앞은 요금을 비싸게 부르기 때문에 도로로 나와 백마를 끌고 있는 이의 흥정을 받아들였다. 서부영화에 나오는 말같이 생긴 녀석이어서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는 기분은 꽤 괜찮았다. 뽕뽕거리는 시끄러운 소리와 사이클릭샤, 오토릭샤,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등 정신없이 복잡한 거리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 꼭 우리의 70년대 초 도로의 모습을 재현한 듯하다. 백마는 채찍의 손놀림에 따라 가다가 서다 달리기도 하며 잘도 간다. 가다가 앞차와 추돌하여 백마가 넘어졌는데도 곧바로 일어난다. 백마 주인은 좁은 길은 갈 수 없다고 큰 도로에서 마차를 세우고 내리라 한다. 접촉사고가 나도 sorry

라고 한마디하고 가볍게 넘기는 인도인들이 교통수단인 말의 안위를 생각하겠는가 했는데, 리샤비를 지불하려 하자 백마에게 당근을 사주어야 한다고 웃돈을 요구한다. 아픈 것도 잊고 달려온 백마가 가여워 못 이기는 척 팁을 주었다.

큰 길에서 내리니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길을 찾아가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복잡한 거리라서 더욱 그렇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두 사람이 들것을 메고 무어라 소리를 지르고 뛰어갈래 똥가 했더니 똥줄로 묶은 시신을 메고 가는 행렬임을 나중에 알았다. 기분이 묘했다. 30분여 걸어가는데 어떤 소년이 길안내를 해 주겠다고 나선다. 골목길은 비가 와서 질척하고 쇠똥들이 뒤범벅이 되어 엉망이다. 좁은 길에 저만큼 소가 어슬렁거리며 걸을 때는 소들과 한치의 틈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스릴도 맛본다.

힘든 코스를 몇 번 지나니 우리가 가려던 게스트하우스가 보인다. 우리를 안내한 소년은 이 집에서 팁을 받으려는지 가지 않고 출입문에서 서성이고 있다. 6층의 파스텔톤 노란색 건물이었었는데 갠지스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방이라고 800루피나 부른다. 연보라빛 페인트를 칠한 벽색깔이 산뜻했을 뿐 다른 것은 형편없었다. 창을 열고 안개가 열게 낀 갠지스를 바라보고 서있으니 이 곳에 온 게 꿈인 듯 싶다. 나의 감회를 깨듯 철망이 있는 창밖으로 원숭이가 나타나 먹을 것을 달라고 손을 내민다. 인도원숭이와의 첫만남. 먹다남은 비스켓을 던져주었다. 조금 쉬다가 5층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화장터가 있는 곳으로 잠시 다녀온다. 이곳으로 내려가는 골목은 화장 문화와 관련된 상점들이 뻗뻗이 들어서있다.



바라나시 화장터의 풍경

뿌연 연기와 누린내 같은 칙칙한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계속해서 상여가 들어온다.

장작더미를 수북하게 쌓여 놓은 곳에 시신을 올려놓고는 불을 붙인다. 빨간 불꽃을 내며

시신이 불길에 휩싸인다. 처음 보는 풍경이라. 기분이 묘하고 착잡하면서도 을씨년스럽다.

바로 아래에 있는 갠지스강에 시신을 담구어 물을 적시면서 순서대로 대기한다.

이 동안에 상주는 강의 물을 작은 항아리로 떠서 자기머리 위에 부으면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한다. 바로 옆에서는 타다 남은 시신의 조각들을 물에 띄운다. 힌두교인들이 가장 성스러운 물이라고 생각하며 이 곳에서 화장을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한다. 더 있기가 힘들어 다시 숙소로 올라간다.

오후 5시에 투숙객에게 갠지스강을 한바퀴 도는 보트를 제공해 주어 보트 선착장으로 급하게 나간다. (갠지스 강의 유래를 살펴보면

인더스 강 유역 문명은 기원전 2500년 전 쯤에 발생한, 인도 최초의 고대문명으로 그 주인공은 인도의 토착 민족이다. 오늘날에는 인도의 여러 민족 중 천민 취급을 받고 있

는 드라비다족이 그 고대 문화의 주인공이었다고 한다. 인더스 문명이 파괴된 것은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침입해 오기 시작한 아리아인 때문인데 인도계르만족의 한 갈래인 아리아족은 상당히 호전적인 유목민족으로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 사이 동안에 인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미 그 전부터 쇠퇴기에 들어가 있던 인더스 문명을 파괴해버렸고, 아리아인의 세력이 갠지스 강에까지 전파됨에 따라 인도 문명의 중심은 인더스 강에서 갠지스 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모인 사람들은 거의 외국인 투숙객인데 모두가 젊은 여행자들이었다. 신비의 세계가 펼쳐지는 인도를 바라보는 눈망울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매캐한 연기가 장작더미 사이로 피어오르자 모두들 숙연한 표정이다. 노 젓는 사공은 뭐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스쳐 지나치는 풍경만으로도 느낌이 와 닿는다. 화장터에서는 근접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보트에서 사진을 한 장 찍어둔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강가의 풍경은 칙칙하지만 가로등의 불빛 때문인지 나름 낭만적인 구석도 보인다. 강가에서 강의 여신에게 올리는 제사의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제를 올리는 장면을 돈을 내고 보트에서 보면 숙소로 데려다 주고 내려서 볼 거면 구경하다가 각자 숙소로 가라는 사공의 말에, 대부분 보트에 타서 광경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우리는 내려서 보기로 했다. 군중과 섞여 계단에 앉아 보았다. 빨간색 옷을 입은 몇 명의 젊은 사제들이 같은 동작으로 음악에 맞춰 세례모니를 한다.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도 보인다. 소원을 비는 양초를 강물 위에 띄우기도 한다. 영혼의 편안한 안식을 바라는 의식이 사뭇 엄숙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연출하는 느낌도 들었다. 주위에는 사진을 찍거나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보트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꽤나 많다. 몰입해서 보고 있다가 재가 끝나니 배가 고파진다. 강가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강가에서 먼 곳으로 걸어 나왔다. 걷는 동안 내내 향 냄새가 계속 진동한다. 멀리 와서 식당을 찾았으나 너무 늦은 시각이라 파장 분위기인데다가 식욕마저 없어져 대충 식사를 하고 나왔다. 숙소를 물어 물어 어둠 속을 헤매며 찾아간다. 하루종일 삶의 무게를 힘겹게 느낀 하루였다. ■



화장터에서 의식을 올리는 모습